균여스님의 독자적 교판론 고려초 화엄사상에 기여

최연식씨 박사논문 '왕권체제 대변' 일부주장에 반론

"균여(均如)스님은 독자적 교판론(敎判論)을 통해 화엄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화엄사상의 정체성을 확립한 고려초기 대표적 화엄사상가다."

고려초 불교계 재편시기에 활동했던 균여스님(923~973). 균여스님의 사상을 고려초기 정치체제 정비과정과 관련,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을 뒷받침하는 사상체계'로 평가한 주장(김두진 〈균여화엄사상연구〉·1983년 刊)을 반박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 '98 박사논문 '균여 화엄사상연구: 교판론을 중심으로'에서 최연식씨(국사학과)가 "균여스님의 사상을 화엄사상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하지 않은 채 왕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이데올로기'로 이해한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한 것. 최씨는 논문에서 균여스님의 독자적인 교판론을 중심로 그의 화엄사상을 중점 고찰하는 가운데 균여스님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본격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균여스님의 사상을 불교사상의 틀 내에서 이해하기에 앞서 정치·사회적 의미로 파악하려는 학계 일부의 불교사 이해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씨는 "실제로 고려초기 화엄종의 부상은 광종(光宗)의 중앙집권화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하나의 사상체계가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단순히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이뤄지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사상자체의 내적 역량 축적과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려는 사상 자체의 쇄신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화엄교학의 이론들을 재검토하여 화엄교학의 체계를 새롭게 정립한 균여스님의 사상은 고려초기 화엄종의 재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특히 김두진교수(국민대)가 '균여스님의 성상융회(性相融會) 사상은 광종대의 대호족(大豪族)을 억제하고 왕실을 중심으로한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씨는 "균여스님의 성상융회 사상은 이론적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던 신라 화엄학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그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이후 화엄사상이 교종(敎宗)을 대표하는 사상으로 재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상융회' 사상은 초기의 화엄교학에서 당시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법상종(法相宗)의 유식학설을 화엄사상의 체계에 포섭하기 위해 대두된 것으로, 김두진은 '왕실과 연결된 화엄의 성(性)의 입장에서 지방 호족과 연결돼 있던 법상종 특히 나말여초의 군소호족의 지지를 받고 있던 신법상종의 상(相)의 입장을 통합하고자 한 것이 균여스님의 성상융회'라며 '국왕과 군소호족이 결합하여 대호족을 억압하는 정책을 합리화해 준다'고 밝혔었다.

최씨는 "현존하는 균여스님의 저술 내용 중에는 직접적으로 전제왕권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는 서술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성상융회 사상이 전제왕권의 이데올로기라는 이해의 전제가 된 왕실과 화엄종, 대호족과 선종, 군소호족과 법상종의 친연관계도 현재의 자료로는 증명하기 힘들다"며 "균여스님의 사상이 당시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성상융회 사상 자체가 아니라 당시의 중앙집권체제의 실현과정에서 균여가 담당한 역할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해 설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하나의 사상을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그 사상의 역사적 의미를 사상계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균여스님과 같이 철학적 논의를 주로 전개하고 있는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상 자체의 철학적 내용을 이해한 위에 그 사상이 현실에서 갖는 정치·사회적 기능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학술단신

'정토학연구' 원고모집

한국정토학회(회장 정태혁)은 〈정토학연구〉 제2집에 수록할 원고를 모집한다. '21세기의 불교신행의 과제'를 주제로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02)581-3137

'원효학연구' 제3집 발간

원효학회(회장 김영태)와 원효학연구원(원장 성타스님)은 최근 〈원효학연구〉 제3집을 펴냈다. '원효성사의 교학과 통일이념 연구'를 주제로 지난해 11월 열린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10편을 수록하고 있다. (0561)42-9922

'경주사학' 제17집 나와

경주사학회(회장 박청평)가 학술논집 〈경주사학〉 제17집을 발간했다. △대구 도동 관음사의 탑상(장충식·동국대) △경주 남산 용장사지마애여래좌상의 명문과 조성연대(박홍국·동국대) △대한제국기 새로운 관리등용제도의 성립과 시행(정구선·동국대)등 10편을 담았다.(0561)770-2157

근대 한국불교학 연구 역사학적 접근서 출발

이능화·권상로씨 선구적 역할

이재헌씨 논문 '불교학 성립과 종교인식'

근대 한국 불교학은 사회진화론적인 진보사관에 입각하여 연구하는 작업, 즉 역사학적 접근 방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헌씨(철학·종교학)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9학년도 박사논문 '근대 한국 불교학의 성립과 종교인식-이능화와 권상로를 중심으로'에서 "불교 근대화를 학문적으로 조명한 이능화와 권상로는 사회진화론과 비교종교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여 진보적인 한국 불교사를 서술하고 종교 다원주의라는 근대적 종교인식의 바탕위에 불교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논문 전반에 걸쳐 '조선 5백여년 동안의 척불에서 벗어나 근대화와 종교의 자유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한국불교는 학문적으로 이를 어떻게 소화하여 대응하였으며, 또 생존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는가'라고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이씨는 "조선후기의 불교학은 근대적 종교인식을 통해 근대학문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이능화와 권상로는 선구자적 입장에서 그 기초를 닦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근대적 불교연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인 '종교인식'에 대해서는 △당시의 종교상황을 종교다원주의적으로 본 것 △당시 종교학의 유력한 방법론이었던 진화론과 비교법을 정확이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종교들을 비교 고찰 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씨는 "근대이후 한국의 불교학은 호교적(護敎的) 교리연구나 훈고학적인 경전 탐구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불교 연구의 틀을 잡아가게 되는데 이능화와 권상로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한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자료의 축적와 정리를 통해 한국 근대불교학을 정립했다"며 "불교개혁의 이념을 정립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를 대사회적으로 홍보, 계몽하는 일에도 앞장섬으로써 불교 자체가 근대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천태종의 원류는 '법안종 선사상'

'불교춘추' 봄호 특집기획

천태종의 원류가 '법안종의 선사상'임을 밝히는 등 의천의 천태종을 새롭게 조명한 학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달 중순 발간되는 계간지 〈불교춘추〉가 봄호 특집기획 '대륙에서 만난 의천, 그의 자취를 따라'를 위해 지난 1월15일부터 24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학술조사를 진행한 것. 학술 조사를 주관한 최석환씨(불교춘추 발행인)는 "의천에 의해 주창된 천태종의 원류는 남종선(南宗禪) 못지않은 전성기를 누리며 고려 선불교를 리드한 법안선(法眼禪)에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법안선의 현장을 찾아서'에서 "법안선은 고려 광종(光宗) 이후 구산선문을 비롯 여러 종파가 천태종에 흡수되면서 자취를 감추었으나 1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엄연히 한국 선종사에 뚜렷한 존재로 각인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법안선은 의천에 의해 선종을 천태종으로 통합하기 이전까지 꽤 오랜기간 전성기를 맞았었다"며 "천태종의 5대 선원 가운데 무려 4곳이 법안종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안종은 고려조에 남종선 못지않은 전성기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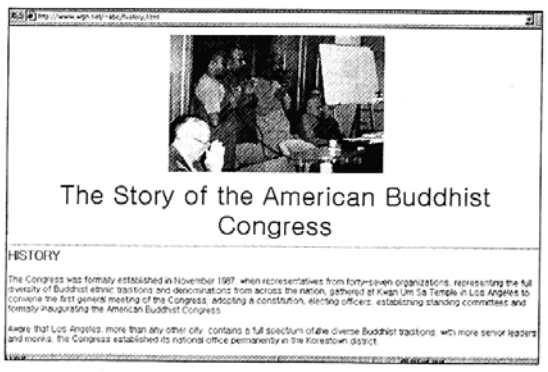
21세기 불교적 사회 '작은공동체'

류승무교수 '승가'지에 발표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에 적합한 불교적 대안사회는 마을이나 지역사회와 같은 '작은 공동체'이다."

〈승가〉지 제16호 특별기획 '경제위기와 불교적 극복방안'에서 류승무 교수(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고실업 사회와 불교적 대안사회'를 통해 "우리가 불교적 지혜나 불교적 사회원리를 원용하여 이를 현대사회적 조건 속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 본다면, 오늘날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원리로서 유용성과 함의를 지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교수는 불교이론이 갖는 대안사회적 모델로서의 효용성을 △합리적 경제관 △참여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관 △친환경적 교리 △무소유 등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원리를 지양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등으로 제시하며 "이상과 같은 근거에 기초하여 미래의 불교적 대안사회를 구성한다면 그 사회의 기본단위는 마을단위의 '작은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교수는 "불교는 인간의 행복을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의 총체적 산물로 간주함으로써 실업문제를 물질적 조건의 개선과 비물질적 조건의 확보를 통해 총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미국의 불교단체

평의회-불교회-불광회 등 활동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중국·일본·티벳등 다양한 불교계의 화합을 목표로 삼고 있는 단체들이 바로 미국불교도평의회(American Buddhist Congress), 미국불교회(The Buddhist Association), 국제불광회(Buddhas Light InternationalAssociation) 등이다.

△미국불교도평의회(이하 평의회) 1987년 11월 미국 전역에서 불교의 윤리적 전통과 불교종파를 대표하는 47개 불교단체 대표자들이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관음사(觀音寺)에서 설립됐다.

평의회에서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미국 불교인들에게 법회와 불교행사 등을 통괄해 알려주고 다국적 언어로 된 불교문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 또 불교인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불교전통에서 유래한 불교인들의 협동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다.

평의회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불교사찰·단체 주소록' 학술회의 년1회 개최 등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자료를 축적,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사찰 및 단체 주소의 경우 지금까지 약 1천8백여 개의 목록이 수집됐다. 이 사이트를 방문한 불자 네티즌이 전자 우편을 통해 자료 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불자 내티즌이 미국의 불교사찰·단체를 등록하려면 하버드대학의 '종교다원론 프로젝트'로 해당 사찰·단체를 설명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또 평의회가 주최한 학술회의 관련 논문·사진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미국불교회 미국불교학에 관심을 가졌던 중국계 미국인의 모임인 '리하이 불교클럽(Lehigh Valley Buddhism Club)'에 기원을 두고 1987년에 설립된 펜실베니아 지역의 중국불교계 학술·신행 단체.

불교회는 펜실베니아의 장엄사에서 회의, 포럼, 법회 등을 개최하고 뉴스레터도 발간, 배포하고 있다. 장엄사는 대불전, 관음전, 인광루, 천련재, 태허재, 도서관, 식당 등의 건축물과 칠보호(七寶湖) 등을 갖춘 대규모 사원이다.

또 불교회 회원들은 중국의 한문장경을 연구하기 위해 불교전뇌자신고공덕회(佛敎電腦資訊庫功德會·The Electronic Buddhadharma Society)라는 학술기구도 설립, 지원하고 있다.

이 공덕회는 대반야경, 불학사전등의 불교 자료들을 입력하여 CD-ROM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상세한 보고서를 한문(BIG-5)으로 읽을 수 있으며 입력한 자료들을 일부 샘플(영·한)로 제공한다.

△국제불광회 대만 불광산의 성운스님이 설립한 국제적인 신행단체. 불광회는 서래사(Hsi Lai Temple)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15에이커에 달하는 서구에서 가장 큰 사찰. 국제불광회는 중국문화와 불교를 전한다는 목적으로 1978년에 준비를 시작, 1988년에 완공하였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미국불교도평의회 http://www.wgn.net/~abc/abc.html
미국불교회 http://dual/iems/nwu.edu/~cwshen/buda-ebs.html
국제불광회 http://www.clcr.com/hsilai/blia.html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지음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의 저자

생생하고 감동적인 신행의 현장, 방방곡곡
영험도량에서 부처님의 은력(恩力)을 체험한다!

10년 지병을 3일만에 낫게 하고, 30년 어두웠던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며, 죽을 고비마다 나타나 삶으로 이끌어주신 부처님. 참회와 발원이 바탕을 이룬 청정한 마음,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간곡한 기도로 운명까지 바꿔버린 우리들의 영험담!

신국판/값 5,000원

대원미디어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우:140-190)
대표전화(02)757-6717 팩시밀리(02)775-8043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안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55㎝』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